

37 요한복음: 예수님의 리더십 본보기 실증: 섬기는 지도자

성경말씀: 요13:1-30

요한복음 총 21장, 1-12장은 그분의 공생애 사역(3년 반), 13-21장은 약 4-50일

십자가 사건 바로 전에 제자들 훈련:

십자가 사건, 부활, 제자들 사명, 드디어 성령님, 교회, 천국 등에 대한 설명

지난 10주 동안 금요 강해에서 느헤미야 강해, 총독이지만 백성과 함께 성벽 공사 참여 진두지휘, 동고동락
말 그대로 섬기는 리더, 섬기는 지도자.

오늘 예수님의 교훈 < >: 12제자들에게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지 보여 주심, 리더는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다. 당연하다. 그런데 본을 보이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하라고만 하고 자기는 안 하면 리더링 불가능
차세대 교회 리더들에게 섬기고 사랑하는 지도자가 될 것을 주문하신다.

특별히 13-17장은 12제자들에게 주는 고별의 말씀(다락방 설교), 17장은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
모세(신31-33), 여호수아(수23-24), 바울(행20), 이들은 말로 남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시청각 행동 교육을 실시하신다.

언제: 십자가 처형을 12-15시간 정도 남겨 놓고, 유언, 잘 새겨들으면 매우 유익하다.

자신의 때가 온 것을 아셨다(1-5).

13:1,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심,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옴

예수님이 아신 몇 가지 사실들

자기 때: 사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것을 강조한다.

2:4, 7:30, 8:20, 12:23, 13:1, 17:1, 주님은 드디어 자신의 때가 온 것을 아심

즉 예수님은 한 시도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 아버지의 때에 맞추어 일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무슨 때: 십자가 처형, 죽음, 매장, 부활, 승천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스럽게
되는 때, 사람의 관점: 고통과 고난, 하나님의 관점: 영광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신 일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왔다(요17:4).

3년 반 동안 그 많은 반대,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오심

우리의 교훈: 하나님의 종(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사람들도, 마귀도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없다. 우리 교회, 사역, 성경 일 등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것도 아셨다(2). 가룟 유다, 요한복음에 8번 언급

마귀가 그에게 들어가서(눅22:3) 그에게 여러 생각을 줌(2)

이제는 어떻게 그분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처형시킬지 알려 줌, 유다 이야기는 조금 뒤 자세히
아버지께서 자기 손에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을 아셨다(3).

심지어 십자가 처형 당시에도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자기의 사명을 아심(3): 왔다가 임무 수행 후 되돌아가는 것, 이 어려운 상황을 다 파악하고 계심

우리 역시 우리의 존재, 사명, 갈 곳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본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신 결과 나타난 행동이 바로 4-5절이다(4-5).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이다.

심지어 유대인 종들도 주인의 발을 닦아 주지는 않았다. 천한 일, 노예나 하는 일

이렇게 하신 이유: 제자들 사이에 큰 자가 되려는 경쟁심이 있었다.

따라서 이 시점에 그들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을 액션을 보여 주는 것 필요함

겸손히 섬기는 종의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빌2:3, 5-8).

예수님의 상황을 보자: 왜 종이 되셨는가?

가난해서가 아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 있다.

그럼에도 수건을 두르고 발을 닦아 주신다. 고후8:9, 베틀는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예수님의 겸손 사례: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5:19, 30),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등 6:38; 7:16; 8:50; 14:24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능, 주권이 있었음에도 종의 자리에서 섬기신다.

수건을 두르고, 물을 나르고 발을 닦아 주신다.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사랑하신다(1).

이러한 겸손의 원천: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 신뢰, 종의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면 예수님처럼 섬김의 리더십 가능함
현 시대 교회에도 세상의 경쟁심, 이기심, 누가 가장 큰자인가?

지식은 자라는데 은혜 면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벧후3:18). 가능하면 굶은 일 젊은 분들
은혜를 기르고 베풀려면 겸손의 토양이 있어야 한다.

지도자의 모습: 겸손과 사랑, 13:1을 보자.

끝까지 사랑하셨다(1).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과 베드로(13:6-11): 구원과 성화

베드로의 차례(6),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사복음서 베드로 사례: 알지 못하고 불쑥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십자가 처형 예고(마16:21-23), 안 됩니다.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6-9)

사람의 구원: 전체가 다 씻긴다. 그의 모든 죄가 제거된다. 용서된다(딤후3:3-7; 히10:17)

그러나 구원 뒤에도 세상에 살면서 쉽게 더러워진다.

다시 음 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 더럽게 된 데만 닦으면 된다. 닦는 방법: 요일1:9
더러워지면 안 되는 이유: 그분과의 교제가 끊어진다(13:8).

구원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됨, 아버지와 아들, 이미 씻긴 자이다(13:10).

그러나 더러워지면 교제가 끊긴다.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교제가 안 된다.

관계: 그분의 십자가의 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인다.

그 뒤: 성령님의 인도하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킨다.

그래도 짓는 죄가 있다. 우리에게 변호자가 있다(요일2:1-2).

주님과의 교제 확장: 그분께,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야 한다. 발을 깨끗이 해야 한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기쁨(12-17)

13:7을 기억하라. 그리고 17을 보라.

겸손과 거룩함(성화) 섬김, 그 뒤에 행복이 온다.

행복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때 생기는 부산물

겸손히 섬기고 거룩하게 걷고 그분의 명령대로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된다.

주님의 질문(12), 사실 그들은 잘 모른다. 주님의 설명

세상 사람들의 행복: 다른 사람이 우리를 섬기는 것, 그래서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그리스도인의 행복: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목사, 집사 등 리더의 기쁨

타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 섬기는 것, 우리 교회 지금까지 잘함

앞으로도 더욱 더 그리하기 바람, 타고 누르려는 사람 리더십을 부여하면 안 된다.

예수님의 모범: 그분의 위치(13), 그럼에도 발을 닦아 줌(14).

그러므로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14)

나는 본보기를 주었다(15). 과거 3년 반, 겸손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마20:20-28), 세배대의 아이들
어머니, 섬겨야 한다. 어린아이들처럼...

이번에는 췌기를 박으려고 실증함

주인과 종의 관계(16), 그분은 종이 되심으로써 종을 주인의 자리로 올림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행해야 한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 성화, 섬긴다. 그러면 행복하다.

예수님과 가롯 유다(18-30)

그 자리에 배신자 유다가 있었다.

유다는 불신자(요6:64-71),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 즉 움 몸을 닮은 적이 없는 자(13:10)
그럼에도 함께 다닌다. 참으로 아이러니

거의 구원받을 자리에 있었으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 심지어 돈 가방 관리, 교회의 중직을 맡음
당시 주님의 두 가지 사명

1. 구약 성경 예언 성취, 2. 아버지께 영광

구약 시41:9; 다윗의 시편, 아마도 압살롬 사건, 그의 조연자 아히도벨(삼하15-17)

신기하게도 유다와 아히도벨, 둘 다 스스로 목매어 죽음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 그들의 믿음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19)

사실을 드러내면서 주님의 고통(21), 십자가 처형 바로 전까지 그에게 애정을 보임, 그의 혼에 대한
애정, 그의 발도 닦아 주심, 끝까지 사랑하심

제자들의 반응(22), 3년 반 동안 누가 그인지 모름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가 마귀임을 아심(6:70), 아시면서도 지금까지 그를 보호하심

여러 이유: 자기 때가 오지 않음, 예언 성취, 마귀에게 허용

가롯 유다: 많은 은혜와 혜택, 그는 변화되지 않음

얼음을 녹이는 햇빛, 진흙은 더 딱딱하게 만든다.

돈과 탐욕 등에 대해 주님은 그렇게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도 그는 계속 도둑질을 함

불신이 위험과 정죄에 대해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는데도 여전히 마음을 더 딱딱하게 함

이집트의 파라오와 같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아이들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한다.

베드로가 고갯짓을 하여 요한에게 물어 보게 함(23-24)

주님께서 빵 조각을 주심(26-27, 룻기 2:14), 사실 극진한 사랑의 표시, 회개 촉구(끝까지 사랑함)

유다에게는 영혼의 어둠의 밤(30). 그러나 그는 반대 방향을 택하고 스스로 자기 처소로 감(행1:25)

제자들은 전혀 모름(28), 달리 생각함(29). 사실 유다는 갈릴리 출신이 아님. 신사, 교육받은 사람,

회계 업무 담당, 제자들의 신뢰, 전혀 의심하지 않음

아직 주님의 시간이 오지 않았다. 물건을 사러 간 줄로 생각함, 아직 큰 관심이 없다.

그 뒤 제자들은 누가 가장 큰 자인가 논쟁함(눅22:24-30).

불신자도 끝까지 사랑하심, 가롯 유다까지

결론

예수님, 항상 하나님의 때에 따라 행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

그리고 신약 교회 시대를 여시면서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 주심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심,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우리의 본보기, 이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약 교회의 섬기는 원리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 구원, 성화의 삶, 은혜와 지식 면에서 성장한다. 그러면 섬기게 되어 있다(13:17).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끝까지 사랑하심(1)을 기억하자.